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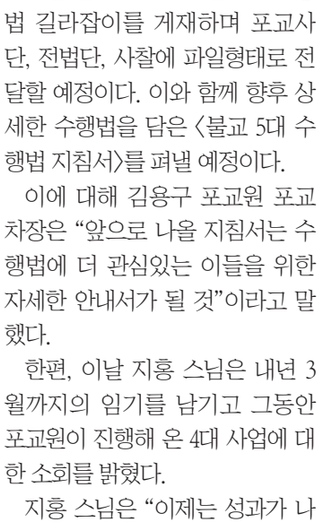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25일)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연화화생(蓮華化生) '코로나19' 라는 유래 없는 재앙 속에서 시절은 7월의 폭염을 더한다. 아미타불의 정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생각나는 시절이다. 염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지금 연꽃 속에서 왕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재앙과 무더위가 팔만법문을 무색케 하는 시절이지만 어김없는 계절의 인연은 피워야 할 꽃을 피우니 도량마다 분홍빛 연꽃이 도래한다. 연꽃이 피고 지는 동안 다시 법문 한 줄씩 붙잡고 연꽃 속에 머물며 재앙과 더위를 떠난다. 사진은 7월 9일 현재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조계사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참선부터 지계·보살행까지 시대 맞는 수행 지침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7월 6일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을 발표했다.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조계종 포교원이 그동안 강조해 온 5대 수행법인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다섯 가지 수행법을 근간으로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천 덕목을 소개하고, 일일수행을 안내하는 책자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발간에 대해 "불자라면 당연히 수지해야 할 계율에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경, 염불, 참선과 대승불교의 근간인 보살행을 합한 것"이라며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다양한 불교전통이 있음에도 그동안 지침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수행의 종교로서 정체성을 만드는 첫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율과 보살행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 계율 수행에서 삼취정계(三聚淨戒) 개념을 적극 활용해 오계의 경우 불살생계 20가지, 불투도계 18가지, 불사음계 17가지, 불망어계 20가지, 불음주계 15가지 등 총 90가지 실천항목을 제시했다.

또 보살행에서는 '사회적 보시'와 '사회적 실천' 개념을 통해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보여준다.

지홍 스님은 5대 수행법에 계율과 보살행이 포함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계율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구속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길라잡이를 보면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 원인을 환경 오염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지구와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계율이 확장될 수 있다. 간경 수행이나 염불 수행,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계율 수행만큼은 기존 범주에서 사회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살행 역시 그동안 한국불교서 수행법으로 구성하지 않았는데 대승불교 중심 수행법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5대 수행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PDF 형태로 포교원 홈페이지에 이번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게재하며 포교사단, 전법단, 사찰에 파일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상세한 수행법을 담은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포교원 포교차장은 "앞으로 나올 지침서는 수행법에 더 관심있는 이들을 위한 자세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홍 스님은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남기고 그동안 포교원이 진행해 온 4대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이제는 성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것들이 많다. 개인적인 이유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한글 의례집 발간 사업, 5대 수행법 지침서 발간 사업, 불교성전 편찬 사업, 비대면, 온라인 전법 포교 시스템 구축 등 포교원이 기치를 건 사업 모두 향후 포교원이 끝까지 이어가 완성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분황사 설계안 첫 공개… 불사 본격화

조계종, 분황사 설계보고회 개최

물라상가 印 부다가야 보유부지
대웅전 · 숙박시설 · 보건소 조성돼
한국 전통 건축양식 바탕한 설계
현지 인허가 후 11월 착공 목표로



조계종이 공개한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감도. 대웅전을 비롯해 숙소시설, 보건소가 들어선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인도 분황사 설계안 발표회를 갖고 건축 조감도와 불사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설계안은 ㈜금성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조계종 총무원, 인도 현지법인인 물라상가가 함께 10여 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협의된 결과물이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숙소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지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지붕 구조로 건립된다. 규모는 74.93㎡, 연면적 964.45㎡이며, 1인실 15개실 · 2인실 6개실로 구성된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단순히 한국인 순례자의 신행과 숙박을 책임지는 도량이 아니라 보건소를 건립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시설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인도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낙후돼 있고, 부다가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의료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 스님들이 참석해 사무소의 설계 설명을 듣고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원행 스님은 "팔작지붕 일변도인 전각들의 지붕을 맞배지붕, 우진각 등 전통 양식을 다양하게 도입해 달라"면서 "건물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미(鴟尾,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가 좋아야 한다. 해인사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불명(佛名) 설매(73) · 연취(67) 보살이 50억 원을 기부함에 따라 본격화된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는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